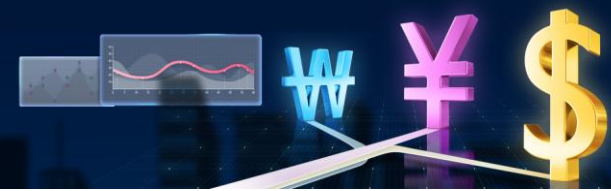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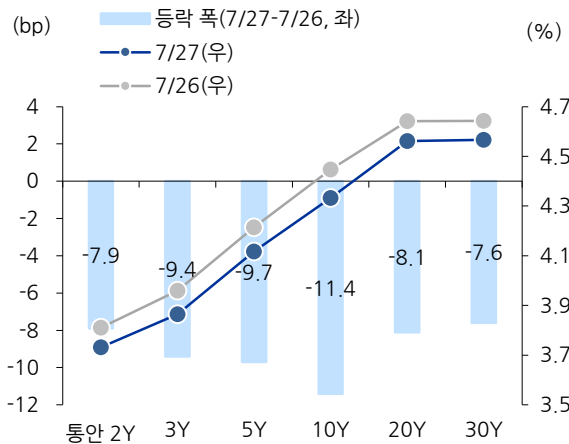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7/27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65%	-9.4	-3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33%	-11.4	-0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6.8	48.8	44.1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88	28.0	12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17	97.0	12.0
	미국채 2년물	4.324%	-1.0	11.5
	미국채 10년물	4.650%	-2.9	5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2.6	34.5	38.5
	독일국채 10년물	3.154%	-4.6	-1.8
	호주국채 10년물	4.998%	-8.4	4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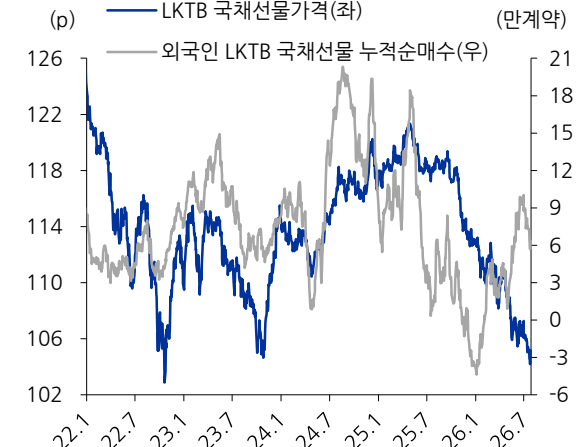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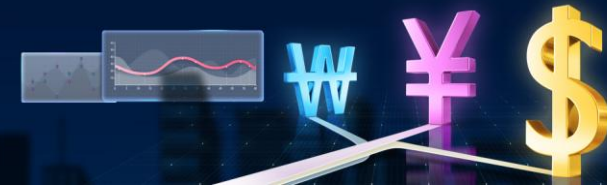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큰 폭 강세 마감. 중동 전쟁 휴전 기대감 증폭.
-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,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-이란 간 종전에 대한 기대감 확대. 국제유가 빠른 속도로 급락하면서 국내 금리 역시 전구간 큰 폭 하락하며 최근 상승폭을 되돌림.
-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 및 호주, 뉴질랜드 등 아시아 기타 국가의 금리 하락 등도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불 플래닝 마감.
-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중단에 따른 유가 급락에 연동. 금리 하락했지만 그 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쳤음.
- 일시 교전 중단이 언제 다시 촉발될 지 모른다는 의구심, FOMC 경계심과 함께 국채 2년, 5년 입찰에 따른 수요 부담, 미국 IG등급 회사채 시장에서의 발향(5개 기업 162억달러) 등이 혼재됐기 때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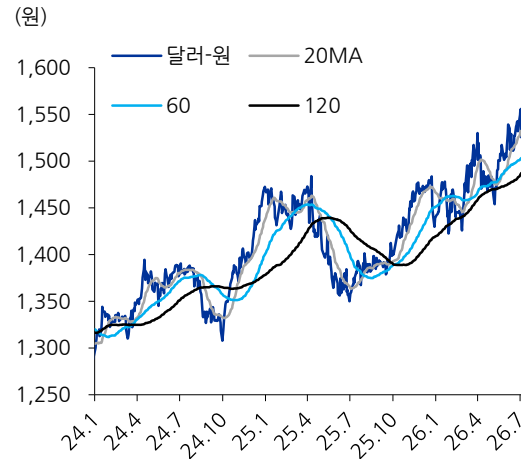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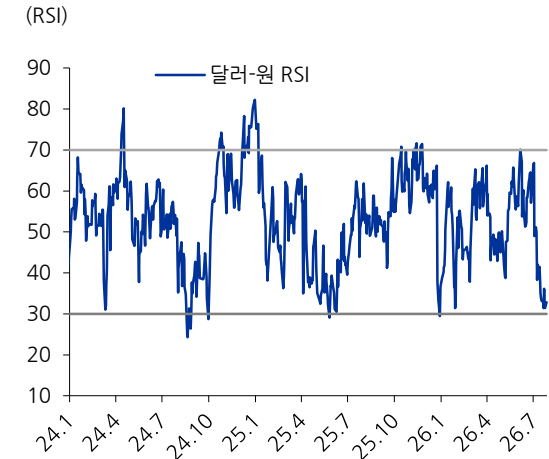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7/27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68.50	0.1%	-0.7%	2.1%
	달러지수	101.54	0.1%	0.6%	3.3%
	달러/유로	1.14	0.0%	-0.4%	-3.2%
	위안/달러(역외)	6.77	-0.1%	-0.1%	-3.1%
	엔/달러	163.75	-0.1%	0.8%	4.5%
	달러/파운드	1.33	-0.3%	-1.1%	-1.3%
	헤알/달러	5.13	0.9%	0.5%	-7.0%
상품	WTI 근월물(\$)	82.61	-7.5%	-0.7%	43.9%
	금 현물(\$)	4,077.67	0.6%	1.7%	-5.6%
	비트코인(\$)	64,965	1.3%	-0.3%	-26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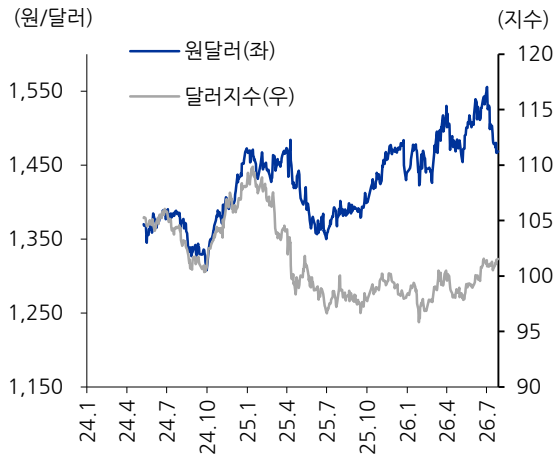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결제 수요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+1.90원 상승한 1,468.50원 마감(야간 1,465.20원).
- 달러-원 환율이 7/2일 고점 1,555원 이후 7/24일 -90원 가량 낙폭 확대함에 따라 수입업체 결제 수요 매수세 활발히 유입되며 환율 상승. 외국인은 코스피를 -2.8조원대 순매도하며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.
-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 이후, 주말 간 미-이란 협상 기대 높아지며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환율 상승 폭은 크지 않았음.
- 달러-원 단기 낙폭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에도 SK하이닉스 ADR 자금 환전, 수출업체 달러 매도 기대 유효함. 미-이란 협상에 따라 중동 긴장감 추가 완화될 경우 한동안 환율 하방 압력이 우세할 가능성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중동 긴장감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에도 파운드 약세에 소폭 상승 마감(DXY +0.1%).
-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시간의 여유를 두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. 이란 측에서도 공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 밝힘에 따라 중동 리스크 완화되며 국제유가는 급락(WTI -7.5%).
- 다만 매파적 FOMC에 대한 우려가 달러 하단을 지지했으며 유가 하락으로 BOE의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져 파운드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소폭 상승.
- 중동 리스크는 완화되는 흐름이나 미-이란 협상 추이를 계속 주목할 필요. 단기적으로 7/29일 美 7월 FOMC 회의 어조에 따라 달러 방향성 결정될 전망.